

‘BBK 특검’ 통과... 대선 후폭풍 예고

어제 국회, 한나라당 불참속 만장일치 찬성 총선까지 연장전... 삼성특검 맞물려 혼미 가중

대선 D-1

국회는 17일 한나라당 의원의 불참 속에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BBK 특검법')을 재서 160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3·4면>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두고 여론조사 1위(여론조사 공표시점인 13일 이전 조사)인 이명박 후보를 겨냥한 특검법이 통과됨으로써, 오는 19일 대선 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 내년 2월 대통령 취임, 4월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국 전반에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더욱이 퇴임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삼성 특검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대선 이후 정국은 극심한 혼란 상태 속에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격랑의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통과된 'BBK 특검법'으로 이명박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당선자 신분으로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특검 수사 결과 이 후보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내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 이전에 기소가 가능해 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가 될 수도 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일부 혐의만 인정된다 해도 법적 문제와는 상관없이 대선 결과에 대한 '정치적 불복'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도 특검이 진행되는 상당기간 취약한 정통성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후보가 당선, 취임하더라도 총선 전까지는 원내 1당은 대통령민주신당이고 여기에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을 더하면 범여권의 국회 의석 과반을 넘는다. 적어도 18대 총선이 있는 4월 초까지는 총리 임명동의안 등 주요 의결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는 등 신임 대통령은 가장 영향력 있는 시기에 특검에 발목을 잡혀 정국 주도권을 상실한 우려가 크다.

더욱이 18대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예상되고 동시에 진행되는 삼성특검법의 위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내년 상반기 정국은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혼미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 관측이다.

이와 관련, 한겨레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연구실장은 "적어도 총선 때까지는 BBK 특검 여파가 계속될 것이며 대통령신당에서는 수도권 등에서 견제세력으로서 입지를 넓히고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BBK 특검법" 통과가 또 목전에 다가온 대선 표심에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질지도 관심사다. 일단 사안 자체가 이명박 후보의 형사상 비리 여부를 '재검증'하는 수사절차라는 점에서 이 후보에게 불리한 재료임은 분명하다.

여기에 특검법 통과 자체가 이 후보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기존의 검찰 수사결과를 뒤집는 것으로 일반 국민에게 비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BBK 동영상 파문 이후 이 후보 발언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표면화돼 있는 여론 환경도 막판 대선세운 굳히기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탈당 러시... 민주당 와해 위기

이상열 의원·김홍일 전의원 '鄭 지지' 선언 민주 소속 지자체장·원외위원장도 잇따라

이인제 민주당 후보가 대선 완주를 고집하면서 대선 막판 정동영 대통합 민주신당 후보와의 단일화가 결국 무산됐다.

우일학의원장 67년 역사인 전북 남부대학교
www.namju.ac.kr
061-250-1111 ~ 061-250-1112

세계로 뻗어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www.jnsc.ac.kr
061-250-1111 ~ 061-250-1112

후보단일화가 무산되자 이상열 의원(목포)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이자 연경 명예회장인 김홍일 전 의원이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데, 이어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원외 위원장들의 탈당 러시가 이어지면서 민주당은 사실상 와해 위기를 맞고 있다. <관련기사 4면>

17일 민주당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 간담회를 갖고 이인제-정동영 후보의 단일화를 논의했으나 별다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결국 대선 막판 후보단일화는 무산됐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와 최인기 원내

대표, 이인제 후보는 전날 저녁에도 긴급 회동을 가졌으나 이 후보가 대선 완주 의사를 고집하면서 후보단일화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인제-정동영 후보의 단일화를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던 이상열 의원은 이날 탈당과 함께 정동영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상열 의원의 탈당 선언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 전 의원, 남궁진 전 문화관광부 장관, 윤철상 연경 중앙회장, 유덕열 사무부총장, 최중근 남원시장, 임정엽 완주군수, 장홍호·차태석 원외위원장 등이 동참했다. 이 의원의 탈당으로 민주당 의석수는 7석에서 6석으로 줄어 들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외국 항공기 무제한 취항 무안공항 '자유공항' 됐다

건교부 지정... 제주와 함께

무안국제공항이 제주공항과 미국 오픈스카이 공항처럼 항공협정에 관계없이 외국 항공사에 무제한 개방되는 '자유공항'으로 바뀐다.

전남도는 17일 "건설교통부가 이날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18일부터 무안공항을 취항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 항공사에 대해 운항횟수 등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무안공항에 취항하려는 외국항공사는 기존에 맺어진 국가간 항공협정과 관계없이 자국과 무안공항 노선을 활용, 여객과 화물을 무제한으로 수송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건교부의 이번 조치로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의 허브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국제선 노선망이 이르면 시일 안에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주몽과 대장금 촬영지 등 한류 관광지 와 나주 공동혁신도시, 2012년 여수엑스포 등과 연계한 지역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항운영 수입 증대 등 다양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무안국제공항에는 무안~상하이 노선만 운항하고 있으나 이번 '자유공항' 선언과 함께 공항 활주로 감편, 무안공항 홍보 등 민·관의 노력이 이어지면서 이달 말부터 타이베이, 마닐라, 마카오, 후쿠오카 등 모두 7개 도시에 주15회(전세계 포함) 추가 운항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건교부와 협의해 무안국제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국제항공사와 외국항공사의 신규노선 개설시 불편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100% 찬성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사건 연루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여수엑스포 준비 잘되고 있다”

유치 후 첫 실무회의...28일 유치위 해단식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성공 이후 첫 '관계기관 실무회의'가 17일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및 전라남도, 여수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한 주요사항들이 논의됐다. 특히 여수세계박람회를 지원할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 특별법'에 대한 의견 수렴과 준비기획단의 구성·운영 및 임무,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최근 서해안에서 발생한 대형 해양오염사고로 인해 여수세계박람회의 추진이 늦추어질지 모른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법제와 조직, 예산 등 성공적인 박람회 준비를 위한 후속 조치들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법은 초안이 마련돼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준비기획단도 당초 목표대로 내년 1월 중에 발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박람회 개최기간까지 4년여밖에 남지 않아 준비기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 법률제정과 준비기획단 구성·운영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6년 5월에 출범한 이후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까지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오는 28일 해단식을 갖고 해체를 예정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접수중!

http://marathon.kwangju.co.kr ☎ 062)220-0541

It's Beautiful!

EXPO